

## 산업보건제도의 정착을 기대하며



거제병원 명예원장 및 산업의학연구소장 / 김 형 식

1980년대 초반 대우조선 의료재단 설립과 옥포대우병원의 개원과 함께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건 사업을 시작 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회고해보 면 그 당시 의료 취약 지역이었던 거제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차 의료 서비스와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업보 건이었기에, 산부인과 의사이지만 병원 책 임자였기 때문에 저에게 산업의학과의 인 연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된 계기는 매우 소중한 기억입니다. 농업, 어업이 주요 산 업이었던 거제도에 조선업이 들어오면서

변화의 바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제 삶의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두 번이나 강 산이 바뀌는 동안, 산업보건제도도 거제의 외형적 변모나 경제문화의 변화만큼이나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발전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보건 체계가 인정 되지 못한 것이 여러 아쉬움을 남기게 합 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보건제도 중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자 건강검 진제도는 주기적으로 현재 고용 중인 근로 자에 대한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그 시행의 주기가 짧게는 1년에 2회 에서 길게는 2년에 1회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 장기 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이직률 이 크게 늘어 동일 업체 내에서 지속적인 고용기간이 건강검진주기보다 짧아 검진대 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잦은 퇴직과 재취업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질환으로 인하여 건 강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나 직업성 질환 이 이미 발생한 근로자들이 채용검진상의 결과로 인해 건강한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고용 유지기간이 더욱 줄어들거나 아니면 영구적 실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건강검진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구조적, 선택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우리 병원에서 채용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만 연간 15,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중 90%는 중소기업 또는 하청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근로자이며, 이 수는 실제 대기업을 제외한 고용인원을 능가하는 규모여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 정도가 유소견자 판정으로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권과 건강권을 다 지켜주어야 할 산업보건 전문가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셋째, 단기간 고용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건강 상태의 악화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 산업보건제도인 건강검진이 오히려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작업환경측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리체계를 이룩한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측정결과를 검진에 반영하여 주기를 조정하기로 한 제도는 혼란스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대우조건을 측정할 때 유사노출군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에 임해 왔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대표할 수 있게 근로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 유사노출군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비슷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를 측정할 때

측정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업체는 검진을 1년에 1회를 다른 특정업체는 2회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모순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어서 산업보건 정책이 빨리 안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산업사회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도 보호해야 하며, 이윤창출과 함께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성장의 필요성과 함께 개인 및 사회생활의 질 향상 사이의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장 근로자들은 경제성장이라는 현안에 밀려, 단지 안전보건의 확보와 노동생활의 보전이라는 측면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산업보건의 추구하는 건강의 유지와 적응능력의 개발 및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로 점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규제 자율화로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제가 완화되고,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이 주기조정을 당해 매우 애석합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산업보건제도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중심의 의학 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학, 병원에서 환자에게 성심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를 찾아 가는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쩌면 산업의학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등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정착은 안 되었지만 훌륭한 후배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